

로마서 묵상 41
(3/12/2021, 금)

찬양: 498(275)(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9:1-5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롬 1-8 장에서 이신칭의의 진리에 초점을 두고 복음의 정수를 설명했다. 로마서의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 9-11 장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지위와 위상이 무엇인지를 논하며, 그들 뿐만 아니라 전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집중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근심을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 1-2 절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왜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다. **3 절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유대인들과 자신의 관계는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심한 마음의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종종 느끼는 고통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하며 공격할 때, 마음에 깊은 근심이 생기고 안타까움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역시 이러한 고통을 가졌다.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 때 무관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반응을 볼 때 우리 역시 마음이 힘들어 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근심이 깊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동족을 향한 마음 역시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영혼구원을 갈망하는 구령의 마음과 열정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의 언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족의 회개와 구원을 얼마나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아직도 무자비한 공산주의 독재 체제 속에서 영육의 사슬에 묶인 채 고통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영적 해방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자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도 주님 앞에서 성찰해 보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과 개인의 문제 속에서 점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회복,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과 나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관심이 식어짐을 경험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갈망은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위와 위상은 어떠한지를 기술한다. **4-5 절 -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

멘. 학자들에 따르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며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로 불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들어 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4 절) 있다고 말씀한다. “**양자 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선민임을 의미한다.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 보다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거부하였다.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부하는 자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말았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과 함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고 말았다.

바울은 5 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조상의 혈통이자 자신들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강조한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5 절)이시다. 결국 성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진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위와 위상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 사랑, 언약, 율법, 특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이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지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 버리고 그 은혜에 반하는 신앙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하며, 변함 없으신 주님 앞에서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나아가며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안타까와 하며 비통함을 느낀 바울과 같이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세상의 구원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누구보다도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성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3. 환난 중에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